

‘동성고 트리오’ 활약 … KIA, 시범경기 기분 좋은 출발

양현종, 3이닝 퍼펙트 피칭
김석환, 멀티히트로 3타점
김도영, 2·3루 연속 도루
NC 다이노스에 7-0 영봉승

‘동성고 트리오’의 활약을 앞세운 KIA 타이거즈가 기분 좋은 승리로 시범경기를 열었다.

KIA는 지난 12일 창원NC파크에서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시범경기 첫 경기를 치렀다. 결과는 7-0 영봉승. 결과도 결과지만 공·수·주에서 모두 지난 시즌과 달라진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특히 양현종, 김석환, 김도영 ‘동성고 트리오’가 눈길 끈 활약을 하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말행’ 양현종이 3이닝 퍼펙트로 KBO 복귀를 알렸고, 6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장한 김석환은 멀티히트로 3타점을 쓸어 담으면서 공격을 이끌었다.

‘막내’ 김도영은 남다른 발로 연속 도루에 성공한 뒤 상대 실수로 홈까지 파고들면서 ‘제2의 이종범’의 면모를 보여줬다.

1회말 양현종이 소크라테스의 좋은 수비로 첫 타자 박건우를 중견수 플라이로 돌려세웠다. 서호철과 마티니는 각각 2루 땅볼과 3루 땅볼로 처리했다.

양현종은 3회에는 노련한 피칭으로 박준영과 오영수를 연속 삼진으로 처리했다. 김기환은 3루 플라이로 돌려세우면서 3이닝(31구)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이후 유승철이 3이닝, 최지민이 2이닝 그리고 전상현이 남은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영봉승을 합작했다.

김석환은 2회 첫 타석에서 몸에 맞는 볼로 나간 뒤 두 번째 타석에서는 안타와 함께 타점을 올렸다.

3회초 박찬호가 볼넷으로 걸어나간 뒤 도루에 성공했다. 김선빈의 좌전 안타로 1사 1·3루, 나성범의 몸에 맞는 볼로 베이스가 가득 찼다.

KIA는 최형우의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얻었다. 이어 황대인의 볼넷이 나오면서 다시 만루, 김석환이 우전 안타를 날리면서 2타점을 기록했다.

김석환이 4-0으로 앞선 5회 세 번째 타석에서 다시 타점을 수확했다.

2사 1·3루에서 타석에 선 김석환이 이번에도 우전 안타를 날리면서 5-0을 만들었다.

6회에는 ‘슈퍼루키’ 김도영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다.

선두타자 한승택이 볼넷을 골라내자 김도영이 대주자로 투입됐다. 박찬호가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났지만, 김도영이 이창진의 타석 때 2루 베이스를 훔쳤다.

그리고 공 1개를 지켜본 뒤 김도영이 다시 3루로 내달렸다. 넉넉하게 세이프가 예상될 정도로 좋은 스타트, 포수의 송구 실책까지 나오면서 김도영이 그대로 홈까지 들어왔다.

김도영의 발로 6-0을 만든 KIA는 7회 최형우의 대타로 나온 나지완의 중월 솔로포를 더해 7-0을 만들었다.

김도영은 7회 첫 타석에서는 베테랑 원종현을 상대로 중전안타를 만들었고, 9회에는 우익수 라인드라이브로 물러났지만 이용찬을 상대로 9구까지 가는 승부를 펼치며 박수를 받았다.

또 다른 루키 윤도현도 첫 시범경기에서 안타를 기록했고, 최지민은 2이닝(23구) 1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이어갔다.

한편 비로 13일 경기를 치르지 못한 KIA는 14일 대구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시범경기 두 번째 경기를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양현종이 지난 12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NC와의 시범경기 1차전 선발로 나와 공을 던지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광주FC, 3연승 신바람 … 전남드래곤즈 시즌 첫 승

광주, 이견희 2호골 폭발
K리그2 4R 안산에 2-0 승리
전남, 카차라바 데뷔골
경남FC에 2-1 역전승



광주FC 선수들이 지난 12일 열린 안산그리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전반 16분 이견희의 선제골이 나온 뒤 함께 기뻐하고 있다.

광주FC가 연승을 달렸다. 전남드래곤즈는 4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첫 승을 신고했다.

광주는 지난 12일 안산와스타디움에서 열린 안산그리너스와 K리그2 2022 4라운드 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이견희가 선제골로 시즌 2호골을 장식했고, 이요뜸은 2도움을 올렸다.

이 승리로 3라운드 휴식팀이었던 광주는 지난 2라운드 대전전 2-0 승리 이후 연승을 기록했다. 9일 FA컵 승리까지 더하면 3연승 질주다.

전반 10분 정호연이 페널티지역으로 진입하던 이요뜸에게 좋은 패스를 해줬지만, 한발이 늦었다. 하지만 16분 이요뜸이 아쉬움을 달래는 정면을 만들었다.

중앙에서 엄지성이 공을 몰고 올라온 뒤 페널티 지역 왼쪽에 있던 이요뜸에게 패스를 했다. 이요뜸은 중앙으로 돌진하는 이견희에게 골을 내줬고, 이내 골망이 흔들렸다. 광주의 시즌 마수결이 골을 기록했던 이견희의 시즌 2호골.

안산이 경기 시작 24분 만에 아스나위를 빼고 김예성을 투입하는 등 교체카드도 분위기 반전에 나섰고, 광주는 추가골을 위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전반 33분 두현석의 크로스를 받은 이견희가 몸을 날려 헤더를 시도했지만 아쉽게 공이 골대를 벗어났다. 전반 41분에는 정호연의 중거리 슈팅이 살짝 골대를 넘어가면서 1-0으로 전반전이 마무리됐다.

후반 시작과 함께 이견희의 슈팅이 나왔지만 안산 골키퍼 이승빈에 막혔다.

후반 6분 골키퍼 김경민이 안산 두아르테의 패서를 원발 슈팅을 좋은 수비로 막아냈다.

후반 9분 헤이스가 골을 눈앞에서 놓쳤다. 헤이스의 슈팅이 수비수 막고 굴절되면서 상대 골키퍼가 역동작에 걸렸다. 득점을 기대했던 순간, 이승빈이 빠르게 방향을 바꿔 골라인 넘기 전에 공을 잡았다.

후반 13분 이견희가 골키퍼와의 1대 1상황을 살리지 못했지만, 후반 17분 광주의 추가골이 나왔다.

이요뜸이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두현석이 미끄러지면서 오른발로 골대 안으로 공을 밀어 넣었다. 광주는 이후 실점 없이 경기를 끝내면서 기분 좋은 연승을 이었다.

전남드래곤즈는 13일 밀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경남FC와의 4라운드 경기에서 2-1 역전승을 거뒀다.

앞서 3경기에서 득점 없이 1무 2패만 기록했던 전남은 0-1로 뒤진 전반 15분 장성재의 골로 침묵을 깼다. 그리고 26분 나온 카차라바의 역전골로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전반 4분 만에 실점이 기록됐다.

전남 골키퍼 김다솔이 정중근과 1대 1 상황을 맞았고, 몸에 맞는 공이 그대로 전남 골대로 빨려 들어갔다.

전반 11분 전승민의 슈팅이 상대 골키퍼에 막혔지만 4분 뒤 장성재가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15분 뒤로 흐른 공을 잡은 장성재가 오른

발로 골망을 흔들면서 전남의 시즌 첫 골을 장식했다.

전반 26분에는 카차라바가 K리그 데뷔골로 승부를 뒤집었다. 스로잉 상황에서 수비수 사이로 공이 흘렀고, 문전에 있던 카차라바가 원발로 골대를 갈랐다.

후반 18분 발로텔리를 투입해 공세 수위를 높인 전남은 수적 우위로 점했다.

후반 21분 경남 김종필이 페널티지역으로 향하던 김태현을 막으려다가 경고 카드를 받았다. 전반전에도 카드를 받았던 김종필은 경고 누적으로 퇴장됐다.

경기 종료 직전에는 경남 에르난데스가 다이렉트 퇴장됐다. 전남 정호진이 공을 잡은 에르난데스를 손으로 잡았고, 흥분한 에르난데스가 정호진의 뒤통수를 손으로 가격했다. 정호진은 경고, 에르난데스는 퇴장 카드를 받았다.

전남은 승리는 거뒀지만 수적 우위에도 추가 득점에 실패했고, 여러 차례 위기를 노출하는 등 아쉬움을 남겼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맨유 호날두 ‘해트트릭’ 토트넘 손흥민 ‘골 침묵’

EPL 29라운드 맨유 3-2 승리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손흥민이 풀타임을 소화한 토트넘 홋스퍼를 꺾고 4위로 올라섰다.

맨유는 13일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9라운드에서 토트넘에 3-2로 이겼다.

팀 내 불화설이 제기되던 호날두가 결승골을 포함해 맨유의 3골을 홀로 몰아쳤다. 지난해 8월 12년 만에 맨유로 복귀하고서 처음으로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호날두가 프로 무대에서 해트트릭을 올린 것은 유벤투스(이탈리아) 소속이던 지난해 3월 세리에 A 칼리아리전 이후 1년 만이다.

호날두가 전반 12분만에 선제골을 뽑았다. 페널티킥 2위로 점프했다.

호날두 덕에 3경기 만에 승리를 챙긴 맨유는 아스널(승점 48·15승 3무 7패)을 제치고 4위(승점 50·14승 8무 7패)로 올라섰다. 3연승이 무산된 토트넘은 7위(승점 45·14승 3무 10패)에 머물렀다.

풀타임을 뒀 손흥민은 3경기 연속골 사냥에 실패했다. 우상으로 꼽는 호날두 앞에서 몇 차례 아까운 기회를 날려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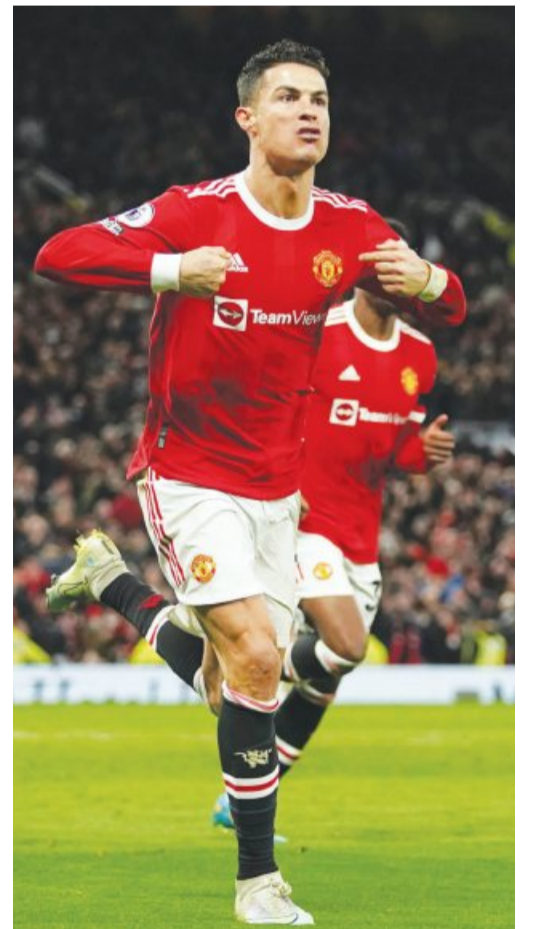
특히 후반 16분 데얀 쿨루세브스키가 오른쪽에서 내준 패스를 골 지역 정면에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한 게 골대 오른쪽으로 빗나가 땅을 쳤다. 호날두가 전반 12분만에 선제골을 뽑았다.

페널티킥 정면에서 프레드의 패스를 받은 호날두는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골대 왼쪽 상단 구석에 꽂았다.

토트넘은 전반 35분 해리 케인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케인은 11골을 기록해 손흥민과 나란히 리그 득점 순위 공동 5위에 자리했다.

맨유는 전반 38분 호날두의 득점으로 다시 한발 앞서나갔다.

왼쪽에서 제이던 산초가 넘긴 땅볼 패스를 호날두가 문전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해 골망을 출렁였다.



12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9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토트넘 홋스퍼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한 뒤 포효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세의 수위를 높인 토트넘은 후반 27분 맨유 수비수 해리 매고이어의 자책골로 다시 동점을 만들었으나, 호날두가 후반 36분 결승골까지 책임졌다.

호날두는 테예스가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해 맨유의 3-2 짜릿한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호날두는 지난 6일 맨체스터 시티와 경기에 결장했다. 결장의 이유는 고관절 부상이었으나, 당시 호날두는 포르투갈에 있던 것으로 알려져 불화설이 제기됐다.

/연합뉴스